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Taehak-hyangwancheong-soji-byeong-sicheop*

朴文烈 (Park, Moon-Year)**

◁ 목 차 ▷

1. 緒言	4.2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에 收錄된 小識의 內容
2. 歷代의 釋奠	4.3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에 收錄된 詩篇의 內容
3. 英祖大王 親行釋奠과 參與人士	5. 結論
3.1 英祖大王 親行釋奠	<참고문헌>
3.2 英祖大王 親行釋奠의 參與人士	
4.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4.1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의 書誌와 形態	

< 초 록 >

본 研究는 英祖 親行의 釋奠과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에 關하여 考察한 것으로 그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釋奠은 文廟에서 孔子를 비롯한 先聖과 先師를 享祀하는 의식으로 朝鮮 英祖 이전에 國王이 釋奠을 親行한 것은 成宗 6년(1475)과 顯宗 2년(1661)의 釋奠뿐이다.

(2) 영조 16년(1740) 8월에 王이 釋奠을 親行한 것은 成宗 11년(1480) 2월의 常典을 추모하여 서술하고 士習을 勉勵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英祖의 繼事述志에 바탕을 둔 學問的·思想的·政治的 傾向을 짐작할 수 있다.

(3)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에는 영조 16년(1740) 8월의 國王 親行釋奠 때의 御製詩 1首와 16人 臣下들의 應製廣進詩 16수 등 포함 17首의 詩篇이 수록되어 있다.

(4)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에 수록된 詩篇들은 國王親行의 釋奠을 慶賀함은 물론 이를 통한 風俗의 教化, 人材의 養成과 試取, 儒風振作 등을 稱誦하고 있다.

(5)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에 수록된 詩篇들 중 英祖의 御製詩만 『英祖實錄』에 수록되어 있을 뿐, 應製廣進詩 16首는 다른 어떤 文獻에도 수록된 바 없다. 따라서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은 唯一本의 貴重한 資料이므로 地方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要語: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太學, 享官廳, 英祖, 釋奠, 釋榮

* 이 논문은 2012-2013학년도에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추가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文獻情報學科 教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12년 5월 30일 최초심사일: 2012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6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 the *Taehak-hyanggwancheong-soji-byeong-sicheop*.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Seokjeon is a memorial service for the old saints and sages including Confucius in a Confucian shrine, Munmyo. There were no cases that a king directly held Seokjeon except for Seongjong in 1475(Seongjong 6) and Heonjong in 1661(Heongjo 2) before the reign of King Yeongjo.

(2) The reasons that the King Yeongjo directly conducted Seokjeon in 1740(Yeongjo 16) were for honoring previous Seokjeon which Seongjong held in 1480(Seongjong 11) and encouraging people to study hard. It can be inferred about academic inclination and political, ideological disposition of the King Yeongjo.

(3) *Taehak-hyanggwancheong-soji-byeong-sicheop* contains 17 poems. One is that the King Yeongjo composed when he conducted Seokjeon in 1740(Yeongjo 16), and the others are that the sixteen retainers wrote to reply to their king's poem and presented the poems to him.

(4) The poems in *Taehak-hyanggwancheong-soji-byeong-sicheop* congratulated Seokjeon, the king conducted, and also praised its influences such as guiding customs, training and selecting talented people, and spreading Confucianism out.

(5) Only the King Yeongjo's poem of *Taehak-hyanggwancheong-soji-byeong-sicheop* is contained in *the Annals of the King Yeongjo*, and other sixteen poems the retainers composed are not recorded in any other literatures. Therefore, *Taehak-hyanggwancheong-soji-byeong-sicheop* can be classified as rare and precious materials, so it seems worth being designated and preserved as a local cultural property.

Key words: *Taehak-hyanggwancheong-soji-byeong-sicheop*, Taehak, Hyanggwancheong, King Yeongjo, Seokjeon, Seokche

1. 緒 言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三國時代부터 國學을 설립하여 風俗을 教化하고 人材를 養成하면서 國風을 크게 振作시켰을 뿐 아니라, 高麗時代와 朝鮮時代에도 國都와 지방에 京學과 鄉校를 설치하고 아울러 廟學同宮으로 文廟를 두고 孔子(文宣王)를 享祀하는 釋奠¹⁾ 등의 文廟制度가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文廟制度는 儒風과 國風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高麗時代에는 宋朝의 제도를 수용하고 朝鮮時代에는 明朝의 제도를 수용하면서도 우리 固有의 獨自性を 살려서 발전시켜 온 것이다.²⁾

釋奠은 文廟에서 孔子(BC551-BC479)를 비롯한 先聖·先師³⁾ 등을 享祀하는 의식으로 ‘釋奠祭’·‘釋菜’·‘釋菜禮’·‘上丁祭’·‘丁祭’라고도 한다. 원래 釋奠은 ‘나물(菜)을 놓고 폐백을 올린다’는 데에서 유래하여, 처음에는 간략하게 푸성귀만을 놓고 享祀하였으나 後世에는 고기와 과일 등의 풍성한 祭物을 마련하여 享祀하기에 이르렀다.⁴⁾

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世宗. 五禮儀. 五禮. 吉禮序例. ‘辨祀’條.

… 凡祭祀之禮 天神曰祀 地祇曰祭 人鬼曰享 文宣王曰釋奠.

2) 孔子의 尊號를 중국에서는 元朝에서 諡號한 ‘大成至聖文宣王’을 明朝 嘉靖 9년(1530)에 ‘至聖先師’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忠烈王朝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位版에 元朝에서 諡號한 ‘大成至聖文宣王’으로 사용하고 있다.

3) 先聖·先師: 옛 聖인과 聖人을 도와 德業을 성취한 사람으로 예전에는 學校를 세우면 先聖과 先師들에게 釋奠을 하였다. 周代에는 舜·禹·湯·文王을 先聖으로 하고 이들을 도운 이를 先師로 하였으며, 後漢의 明帝 때부터는 周公을 先聖, 孔子를 先師라 하였으며, 삼국 때의 魏 이후로는 孔子를 先聖으로, 唐朝에는 周公을 先聖으로 하기도 하고 孔子를 先聖으로 하기도 하다가 高宗 이후로 孔子가 先聖으로 고정되었다. 先師로는 顏子 외에 子思·曾子·孟子 등으로 그 수가 증가되었으며, 明朝 世宗 때에는 先聖·先師를 합하여 孔子 한 사람으로 하여 主享을 하고 그 나머지는 配享을 하였다.

4) 釋奠: 太學과 鄉校 등의 學校에서 先聖과 先師 및 先賢 등에 올리는 祭禮이다. 釋奠과 釋菜의 차이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釋奠에는 소나 양 등의 犧牲을 쓰고 風樂을 合奏하는 것이며 釋菜는 釋奠보다 가벼운 儀禮로 犧牲과 合奏가 없는 것이 그 차이이다. 서울은 成均館의 文廟에서 지방은 鄉校의 大成殿에서 매년 2월과 8월의 上丁日(첫정일)에 거행하였다.

최근 筆者는 조선의 英祖大王이 그의 16년(1740) 8월 上丁日에 成均館에 나아가 釋奠을 親行하면서 직접 小識와 七言絶句를 製述하여 太學인 成均館의 享官廳⁵⁾의 壁에다 붙이고 同參한 諸臣들에게 應製賡進하도록 한 뒤에 이를 모아 書寫하고 分賜한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⁶⁾을 목견한 바 있다.

본 연구는 英祖大王 親行的 釋奠과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에 수록된 詩篇들의 분석을 통하여 본 詩帖의 學術的 가치와 文化財的 가치를 考究함으로써, 英祖大王의 儒學觀과 治世觀의 窺見은 물론 본 詩帖의 文化財指定을 위한 基礎研究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歷代의 釋奠

우리나라에서의 釋奠의 시작은 新羅의 진덕여왕 2년(648)에 金春秋(604-661)가 唐朝의 國學에서 釋奠을 參觀하고 돌아온 뒤에 비로소 釋奠에 관하여 認知하였던 듯하나,⁷⁾ 당시 太學에서 釋奠이 실행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자세하지 않다.

高麗에서도 成宗 2년(983)에 博士 任老成(?-?)이 宋朝로부터 「文宣王廟圖」와 「祭器圖」 및 「七十二賢贊記」 등을 將來하고⁸⁾ 成宗 11년(992)에 國子監을 창설하면서⁹⁾ 「文宣王廟圖」 등을 참고하여 文廟를 조성함으로써 비로소 釋奠이

5) 享官廳: 文廟의 享祀 때에 獻官 및 諸執事가 居處하며 心身を 敬虔히 淸齋하는 場所이다.

6)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筆寫本. [漢城]: [筆寫處不明], [英祖 16(1740)]. 個人所藏.

7) 金富軾 奉宣撰, 民族文化推進會 編, 「三國史記」. 影印本.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73. 新羅本紀. 眞德王 2年 冬條.

冬 … 遣伊浪金春秋及其子文王朝唐 太宗遣光祿卿柳亨 郊勞之 既至 見春秋儀表英偉 厚待之 春秋詣國學 觀釋奠及講論 太宗許之 …

8) 鄭麟趾 等奉命撰, 「高麗史」.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81. 成宗 2年 5月 甲子條. 博士任老成 至自宋 獻大廟堂圖一鋪·并記一卷·社稷堂圖一鋪·并記一卷·文宣王廟圖一鋪·祭器圖一卷·七十二賢記一卷.

9) 鄭麟趾 等奉命撰, 「高麗史」. 志28. 選舉. 學校. ‘國學’條. 成宗 … 十一年十二月 教有司相得勝地 廣營書齋·學舍 量給田莊 以充學糧 又創國子監.

실시되었던 듯하다. 그러나 당시에는 宋朝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統一新羅의 文廟制度를 계승하여 孔子와 顏回 및 10哲의 塑像만 봉안하고 享祀하였을 뿐 72賢은 從祀하지 않았던¹⁰⁾ 듯하다.

그 뒤 顯宗 11년(1020)에 新羅의 執事省 侍郎 崔致遠(857-?)을 內史令으로 追贈하여 從祀하고¹¹⁾ 顯宗 13년(1022)에 신라의 翰林 薛聰(655-?)을 弘儒侯로 追贈하여 從祀함으로써¹²⁾ 비로소 우리나라의 先儒들도 合祀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宣宗 6년(1089)에 文廟를 수리¹³⁾하고 선종 8년(1091)에 國學의 壁上에 72賢의 畫像을 그리고¹⁴⁾ 숙종 6년(1101)에 文廟에 左右廊을 조성함으로써¹⁵⁾ 兩廡를 갖춘 文廟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高宗朝에 蒙古軍의 침입으로 開京의 文廟가 불탄 뒤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忠烈王 29년(1303)에 國學學正 金文鼎(?-?)이 元朝에서 先聖과 10哲像과 祭器 등을 將來한¹⁶⁾ 뒤에 충렬왕 30년(1304)에 國學에 大聖殿을 새로 준공하였다.¹⁷⁾ 이어서 충렬왕 34년(1308)에 元朝의 제도에 따라 孔子를 ‘大成至聖文宣王’으로 加封하고¹⁸⁾ 文廟의 正殿을 大成殿으로 고치면서 孔子를 主享으로 하고 顏回

-
- 10) 金榮振 著, 『忠北의 鄉校와 文廟』 (淸州: 淸州大學校博物館, 2005), 67.
 - 11) 鄭麟趾 等奉命撰, 『高麗史』. 顯宗 11年 8月 丁亥日條.
追贈新羅執事省侍郎崔致遠內史令 從祀先聖廟庭.
 - 12) 鄭麟趾 等奉命撰, 『高麗史』. 顯宗 13年 正月 甲午日條.
贈新羅翰林薛聰弘儒侯 從祀先聖廟庭.
 - 13) 鄭麟趾 等奉命撰, 『高麗史』. 宣宗 6年 8月 癸丑日條.
以修葺國學 備儀仗 移安文宣王于順天館.
 - 14) 鄭麟趾 等奉命撰, 『高麗史』. 志16. 禮. 吉禮中祀. 文宣王廟. ‘宣宗’條.
八年九月庚戌 禮部奏 國學壁上 圖畫七十二賢 其位次 依宋國子監所讚 名目次第 其章服 皆做十哲 從之.
 - 15) 鄭麟趾 等奉命撰, 『高麗史』. 志16. 禮. 吉禮中祀. 文宣王廟. ‘肅宗’條.
六年四月癸巳 國子監奏 文宣王廟左右廊 新畫六十一子·二十一賢 請從祀于釋奠 從之.
 - 16) 鄭麟趾 等奉命撰, 『高麗史』. 忠烈王 29年 閏5月 戊寅日條.
國學學正金文鼎 以宣聖十哲像 及文廟祭器 還自元.
 - 17) 鄭麟趾 等奉命撰, 『高麗史』. 忠烈王 30年 6月 乙酉日條.
國學大成殿成.
 - 18) 鄭麟趾 等奉命撰, 『高麗史』. 忠烈王 34年 2月 丙辰日條.
元 詔加封孔子大成至聖文宣王.

를 配享으로 하며 10哲과 孟軻(BC372-BC289)·崔致遠·薛聰 등을 從享으로 하고 61弟子와 23賢을 從祀로 하여 도합 99位를 享祀하기에 이르렀다.¹⁹⁾

高麗의 釋奠은 中祀로 매년 仲春과 仲秋의 上丁日에 釋奠儀에 따라 거행되었다.²⁰⁾ 그러나 공민왕 10년(1361)에 紅巾賊의 난으로 文廟가 퇴락하고 釋奠도 소홀해지자 공민왕 16년(1367)에 國學을 重修하였으며,²¹⁾ 釋奠의 禮文을 잃어버려 釋奠이 法式에 맞지 않자 공민왕 18년(1369)에 三司右使 李穡(1328-1396)으로 하여금 바로 잡도록 하여 禮度를 갖추어 釋奠을 거행하기도²²⁾ 하였다.

고려를 承國한 조선은 太祖 3년(1393)에 漢陽으로 천도한 뒤 文廟의 경영을 위하여 태조 6년(1397)에 文廟造成提調를 두고 文廟를 조성하였다.²³⁾ 정종 2년(1400)에 大聖殿에 불이 나서²⁴⁾ 방치하였다가 太宗 7년(1407)에 재건하면서²⁵⁾ 廟學同宮制에 따라 成均館 앞에 文廟를 신축하고 大成殿과 東西兩廡 및 神廚 등을 두었으며,²⁶⁾ 태종 10년(1410)에는 廟庭碑를 세우기에 이르렀다.²⁷⁾

그리고 世宗 15년(1433)에 東西兩廡를 증축하였으며,²⁸⁾ 端宗 원년(1453)에

-
- 19) 金榮振 著, 『忠北의 鄉校와 文廟』 (淸州: 淸州大學校博物館, 2005), 68.
 - 20) 鄭麟趾 等奉命撰, 『高麗史』. 志16. 禮. 吉禮中祀. 文宣王廟. ‘瘞坎神位’條. 瘞坎 在殿北壬地 方深取 足容物 釋奠日 仲春·仲秋上丁.
 - 21) 鄭麟趾 等奉命撰, 『高麗史』. 恭愍王 16年 5月 丙戌日條. 命重營國學.
 - 22) 鄭麟趾 等奉命撰, 『高麗史』. 志16. 禮. 吉禮中祀. 文宣王廟. ‘恭愍王’條. 十八年八月丁卯 命三司右使李穡 釋奠于文廟 自辛丑播遷之後 禮文廢墜 釋采之儀 不中法式 穡 考正其失 選諸生 爲執事 肆儀三日 禮度可觀.
 - 2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6年 6月 2(壬午)日條. 以宦官金師幸 爲文廟造成提調.
 - 2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定宗 2年 2月 2(丁酉)日條. 新都文廟大成殿災.
 - 2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7年 3月 21(乙亥)日條. 成均館文廟成.
 - 2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7年 5月 6(己未)日條. 奉安文宣王及四配神位於文廟 十哲則東西翼室 歷代從祀諸賢 列於東西廡.
 - 2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0年 9月 29(癸巳)日條. 樹碑于文廟 碑文曰 ….
 - 2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宗 15年 閏8月 24(甲戌)日條. 禮曹啓 司藝金泮上書 曹與詳定所同議 一文廟東西廡 依上言各增構四楹 … 啓皆從之.

‘大聖殿’의 편액을 ‘大成殿’으로 고쳤다.²⁹⁾ 그 뒤 성종 21년(1490)에 享官廳을 별도로 건축하였으나³⁰⁾ 改造의 필요성이 대두되자³¹⁾ 성종 22년(1491)에 개조하였으며,³²⁾ 성종 24년(1493)에는 文廟의 東西兩廡를 보수하였다.³³⁾

燕山朝에는 文廟가 頹落되었으나,³⁴⁾³⁵⁾ 中宗이 즉위하면서 文廟를 수리하여 燕山朝에 다른 곳으로 移置하였던 廟庭碑와 大成殿의 편액을 다시 옮기고 位版도 봉안하였다.³⁶⁾ 그러나 다시금 壬辰倭亂(1592)으로 文廟가 모두 燬해되자³⁷⁾ 선조 33년(1600)에 文廟를 수리하여 文教를 부흥시킬 것을 건의한 成均館儒生들의 상소³⁸⁾에 따라 文廟를 중건하고 文廟制度를 中興시켰다.³⁹⁾

-
- 2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端宗 1年 7月 27(壬午)日條.
議政府據禮曹呈啓 以大聖殿書文廟之額 不合名義 請改書大成殿 從之.
- 3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1年 2月 8(庚寅)日條.
御經筵 講訖 特進官成倪啓曰 文廟釋奠祭及親祭時諸執事 分入東西齋 儒生寄宿於閭閣 而參祭 甚不可 請別建享官廳 上曰 宿於閭閣而參祭不可 其創之.
- 3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1年 7月 19(己巳)日條.
成均館同知事李克增·成倪來啓曰 釋奠祭享官廳 曾命營構 臣等與繕工提調 共審基址 正錄廳北 有隙地可構 請用本館奴婢貢布 以備材木 且文廟饌卓狹小 朔望祭則可以奠饌 釋奠祭則饌物多 不得已奠於地 甚無體貌 請改造 傳曰 可.
- 3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2年 11月 7(己卯)日條.
成均館同知事李克增來啓曰 館享官廳已成 請以餘材造四聖十哲椅子及位版櫃 從之.
- 3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4年 閏5月 7(庚子)日條.
御經筵 講訖 掌令潘佑亨啓曰 近因旱乾 命停文廟東西廡改造之役 去月望祭兼告事由 而無緣遽停 恐不可也 顧問左右 領事李克培對曰 既告始役 今當停役 亦宜告之 事神之道 不宜如是瀆也 請勿停役 上曰 可.
- 3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10年 8月 5(壬戌)日條.
文廟造成都監提調等啓 請遣官監斫材木 文廟碑及大成殿·明倫堂·尊經閣扁額 移于他處 從之.
- 3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10年 10月 18(乙亥)日條.
傳曰 文廟若構於東大門外 則儒生必登高 觀望于內 移下城南.
- 3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1年 9月 3(己卯)日條.
朴元宗等僉議啓請曰 … 成均館急速修理 還安位版 諸學堂並令修理復舊 … 傳曰 可.
- 3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28年 7月 20(辛卯)日條.
司諫院啓曰 喪亂以後 學校頽廢 鞠爲茂草 士子傷嗟 自上躬謁先聖 以示崇重之意 …
- 3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33年 4月 2(乙巳)日條.
成均館進士李好信等上疏 請修文廟 以興文教 … 答曰 令該司議處.
- 3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38年 2月 26(庚午)日條.

한편, 조선에서는 태종 7년(1407)에 새로 세운 文廟의 正殿에는 孔子와 4聖을 봉안하고 東西翼室에는 10哲과 東西兩廡에는 歷代로 종사한 여러 賢人의 위패를 봉안하였으며,⁴⁰⁾ 태종 13년(1413)에 揚雄(BC53-AD18)을 철거하고 漢儒인 董仲舒(BC170-BC120)와 元儒인 許衡(1209-1281)을 종사하였다.⁴¹⁾

그 후 世宗朝에 제정된 祀典에서는 孔子와 4聖 10哲 108賢으로 정하였으나⁴²⁾ 그 이후에 蔡沈(1167-1230) · 吳澄(1249-1333) · 眞德秀(1178-1235) 등을 종사하고 成宗 11년(1480)에 胡安國(1074-1138)을 종사하였으며,⁴³⁾ 中宗 12년(1517)에 고려의 鄭夢周(1337-1392)를 종사하고⁴⁴⁾ 光海君 2년(1610)에 조선의 金宏弼(1454-1504) · 鄭汝昌(1450-1504) · 趙光祖(1482-1519) · 李彥迪(1491-1553) · 李滉(1501-1570) 등을 종사하였다.⁴⁵⁾

숙종 8년(1682)에 이르러 公伯寮(?-?) · 荀況(BC313-BC238) · 賈逵(174-228) · 馬融(79-166) · 王肅(195-256) · 杜預(222-285) · 何休(129-182) · 王弼(226-249) · 吳澄 · 申黨(?-?) 등을 철거하고 胡安國(1074-1138) · 張栻(1133-1180) · 眞德秀 · 蔡沈 등의 위차를 바꾸고 明朝의 祀典에도 없는 宋儒인 楊時(1044-1130) · 羅從彥(1072-1135) · 李侗(1039-1163) · 黃榦(1152-1221)과 조선의 李珥(1536-1584) · 成渾(1535-1598) 등을 종사하였다.⁴⁶⁾

成均館啓曰 文廟重建之役 極爲浩大 … 營繕聖廟 則始役於辛丑八月 畢役於壬寅七月 東西兩廡 則始役於癸卯七月 畢役於甲辰八月 … 聖廟以下位板 · 位交倚 · 床卓 一應諸具 無不畢備 聖廟釋奠祭 則自壬寅初設行 東西廡 則本年春 已爲設行 廟中之事 今無所欠 …

4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7年 5月 6(己未)日條.

奉安文宣王及四配神位於文廟 十哲則東西翼室 歷代從祀諸賢 列於東西廡.

4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3年 2月 8(丁巳)日條.

始以漢江都相董仲舒 · 元中書左丞許衡 從祀文廟 罷莽大夫揚雄之祀 埋雄神主于屏處.

42) 金榮振 著, 『忠北의 鄉校와 文廟』 (淸州: 淸州大學校博物館, 2005), 74-75.

4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11年 12月 2(丁未)日條.

同知事李坡啓曰 蔡沈 · 吳澄 · 眞德秀 已命從祀文廟 胡安國作春秋傳 其功尤大 而獨不與焉 請并祀之 上曰 可.

4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12年 9月 17(庚寅)日條.

以文忠公鄭夢周 從祀文昌侯崔致遠之下 遣使祭之.

4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2年 9月 5(丁未)日條.

教中外大小臣僚 · 耆老 · 軍民 · 閑良人等 以從祀金宏弼 · 鄭汝昌 · 趙光祖 · 李彥迪 · 李滉等于文廟 下教書曰 …

숙종 15년(1689)에는 己巳換局(1680)으로 집권한 南人의 주장에 따라 李珥와 成渾 등을 철거하였다가⁴⁷⁾ 甲戌獄事(1694)로 西人이 득세하면서 숙종 20년(1694)에 다시 봉안하였으며,⁴⁸⁾ 숙종 27년(1701)에 東西兩廡에 종사하였던 曾點(?-?)·孔鯉(BC532-BC482)·顏無繇(BC545-BC?) 등을 啓聖祠로 옮기고⁴⁹⁾ 숙종 40년(1714)에는 東西兩廡의 周敦頤(1017-1073)·程顥(1032-1085)·程頤(1033-1107)·邵雍(1011-1077)·張載(1020-1078)·朱熹(1130-1200) 등 宋朝 6賢을 大成殿으로 올려 종사하였다.⁵⁰⁾ 숙종 43년(1717)에는 金長生(1548-1631)을 종사하고⁵¹⁾ 또 爵號와 名字가 틀린 16位의 위패를 바로 잡았다.⁵²⁾

英祖 32년(1766)에 宋時烈(1607-1689)과 宋浚吉(1606-1672) 등을 종사하고⁵³⁾ 영조 40년(1764)에 朴世采(1631-1695)를 종사하였으며,⁵⁴⁾ 正祖 20년(1796)

- 4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8年 5月 21(戊辰)日條.
以文廟從祀陞黜禮成 頒教中外 百官陳賀 … 教文曰 … 茲於本月二十日 將文廟從享壽長侯公伯寮·蘭陵伯荀況·歧陽伯賈逵·扶風伯馬融·司空王肅·司徒杜預·任城伯何休·偃師伯王弼·臨川伯吳澄黜享 文登侯申棖·淄川侯申黨以疊享去黨 建寧伯胡安國·華陽伯張栻·蒲城伯眞德秀·崇安伯蔡沉以失次 改定位置 以將樂伯楊時·文質公羅從彥·文靖公李侗·文肅公黃幹·文成公李珥·文簡公成渾新從享於東西廡 …
- 4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15年 3月 18(乙酉)日條.
黜文成公李珥·文簡公成渾於文廟從享.
- 4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6月 23(己未)日條.
復以李珥·成渾從享於文廟.
- 4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7年 4月 23(庚辰)日條.
啓聖祠成 齊國公叔梁紇主享 曲阜侯顏無繇·泗水侯孔鯉 配享在東 萊蕪侯曾點·邾國公孟孫氏 配享在西 初顏無繇·曾點·孔鯉 配于文廟 故先期告事由 移安于別堂 改題位板 及是日安于新祠.
- 5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40年 8月 9(戊寅)日條.
陞配宋朝六賢於文廟大成殿內 …
- 5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43年 2月 29(甲寅)日條.
命配享文元公金長生於文廟.
- 5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43年 8月 5(丙戌)日條.
改題文廟配位及東西廡從享課書處 始 文廟從享位版爵號·名字中 有誤字者 凡十六位在顯廟朝 已有定奪 當釐正 而因循未果 … 遂以釋菜在明 於是日 先行改題.
- 5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32年 2月 1(己亥)日條.
上命文正公宋時烈·文正公宋浚吉從祀文廟.
- 5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40年 5月 15(丙寅)日條.
上行畫講 命大臣禮曹判書同入 教曰 … 予於文純公朴世采 有曠世而相感者 文純之爲國

에 金麟厚(1510-1560)를 종사하고⁵⁵⁾ 高宗 20년(1883)에는 趙憲(1544-1592)과 金集(1574-1656) 등을 종사하였다.⁵⁶⁾ 그리하여 조선시대 말기에는 大成殿에 孔子와 4聖 그리고 10哲과 宋朝 6賢을 봉안하고 東西兩廡에 중국의 94賢과 우리나라의 18賢을 합하여 모두 133位를 봉안하기에 이르렀다.⁵⁷⁾

조선시대의 文廟祀典은 明朝에서 太宗 12년(1412)에 明制를 따를 것을 强要 받고⁵⁸⁾ 宣祖 34년(1601)에 孔子의 尊號를 ‘文宣王’에서 ‘先師’로 바꾸고 胡居仁(1434-1484)·陳獻章(1428-1500)·王守仁(1472-1529)·薛瑄(1389-1464) 등을 종사하도록 요구하였으나⁵⁹⁾ 明朝는 물론 清朝의 祀典도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인 祀典을 고집하였다.

조선시대의 釋奠은 고려와 같이 吉禮中祀로 매년 2월과 8월의 上丁日에 거행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春秋釋奠과 朔望焚香은 계속되었으나, 1920년부터 釋奠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바꾸고 1937년부터 祭日을 양력 4월 15일과 10월 15일로 하였다.

그러나 광복 후 1949년에 全國儒林大會의 결의로 大成殿에 종사했던 10哲과 周敦頤·程頤·邵雍·張載 등과 東西兩廡에 종사하였던 중국의 94賢 등을 철폐하고 우리나라의 18賢을 大成殿으로 올려 종사하다가 1961년에 철폐했던 10哲과 周敦頤·程頤·邵雍·張載 등만 다시 從祀하고 있다.⁶⁰⁾

오늘날도 成均館에서는 옛 의례에 따라 매년 春秋釋奠을 거행하고 있으나,

苦心 與李文成前後一也 … 其令儀曹涓日 特舉文純公從享文廟之典 …

5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正祖 20年 11月 8(己酉)日條.
行酌獻于文宣王廟 從祀文正公金麟厚于聖廡.

5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高宗 20年 11月 20日條.

57) 金榮振 著, 『忠北의 鄉校와 文廟』(淸州: 淸州大學校博物館, 2005), 78-79.

5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2年 5月 3(丙戌)日條.
任添年·崔得罪 回自京師 … 其齋來禮部咨曰 … 本國祖廟及社稷山川文廟等祭 未知聖朝禮制·藩國儀式 仍用前朝王氏舊禮 深爲未便 奏請頒降遵守 …

5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34年 1月 2(辛丑)日條.
經理萬世德咨文曰 … 將此各處文廟牌位字, 改正師字 … 又將胡·陳·王·薛四賢 準令從仕 …

60) 金榮振 著, 『忠北의 鄉校와 文廟』(淸州: 淸州大學校博物館, 2005), 78-79.

祭日是 여러 차례 변경을 거듭하다 1953년부터 음력 2월과 8월의 上丁日에 거행하다가 2007년부터는 孔子의 忌辰日을 陽曆으로 환산한 5월 11일에 春期釋奠을 봉행하고 孔子의 誕降日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28일에 秋期釋奠을 봉행하고 있다. 그 절차는 迎神禮·奠幣禮·初獻禮·空樂·亞獻禮·終獻禮·飲福禮·徹邊豆·送神禮·望燎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⁶¹⁾

3. 英祖大王 親行釋奠과 參與人士

조선시대 英祖大王 이전의 列朝에서 謁聖⁶²⁾·酌獻·視學⁶³⁾ 등의 禮를 親行한 사례는 적지 않았으나, 釋奠을 친행한 사례는 성종 6년(1475)과 현종 2년(1661)의 釋奠뿐이다.⁶⁴⁾

『成宗實錄』에 의하면 성종 11년(1480, 경자) 2월 7일(정사)에 왕이 成均館에서 釋奠을 親行하고 이어서 “祖宗朝로부터 學宮에 거둥하면 반드시 선비를 뽑았으니 지금 또한 人材를 試取하려 한다”⁶⁵⁾고 傳敎한 뒤에 明倫堂에 나아가 鄭昌孫(1402-1487) 등을 試官으로 삼아 文科에서 崔湑 등 3인을 試取하고 武科에서 內禁衛 吉邵 등 3인을 試取한 바 있었다.⁶⁶⁾

61) 金榮振 著, 『忠北의 鄉校와 文廟』 (淸州: 淸州大學校博物館, 2005), 82-83.

62) 謁聖: 成均館 文廟의 孔子神位에 참배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 國王이 처음으로 謁聖한 것은 태종 14년(1414)이었다. 國王 親行의 謁聖 때에는 成均館 儒生을 대상으로 人材를 試取하는 謁聖試를 실시하였다.

63) 視學: 國王이 成均館에 거둥하여 儒生들의 學業狀況을 돌아보는 일로 이때 釋奠을 거행하고 人材를 試取하는 謁聖試를 행하기도 하였다.

64) 國朝寶鑑廳 編, 『國朝寶鑑』. 木版本. [發行地不明]: [發行者不明], 憲宗14[1848]. 英祖 16年 8月條.

八月 始親行釋奠 先是 列朝雖親行謁聖·酌獻·視學之禮 而至於親行釋奠 惟成宗六年 顯宗二年而已 ….

6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11年 2月 7(丁巳)日條.

上 幸成均館 行釋奠 仍傳曰 自祖宗朝 幸學則必取士 今亦欲取人 ….

6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11年 2月 7(丁巳)日條.

上 幸成均館 行釋奠 … 上 御明倫堂 命昌孫等爲試官 以擬唐宰相乞貨韓愈貶潮州表爲題

또한 『顯宗實錄』에 의하면 현종 2년(1661) 9월 24일(庚子)에 왕이 太學에 거동하여 先聖에게 釋奠을 親行하고⁶⁷⁾ 이어서 明倫堂으로 나아가 命官 李景奭(1595-1671)에게 出題하도록 하여 선비를 시험하게 하고 承旨 1인을 남겨두어 製述을 감독케 하여 선비를 試取한 바⁶⁸⁾도 있었다.

3.1 英祖大王 親行釋奠

英祖大王이 親行한 釋奠은 영조 16년(1740, 경신) 8월 9일(정미)의 釋奠이다. 『英祖實錄』에는 영조 16년(1740) 8월 8일(병오)에 王이 太學에 나아가 釋奠을 親行하면서 舊典을 추모하여 서술하고 士習을 勉勵하는 내용의 七言絶句와 小識를 지어 享官廳의 벽에 붙였던 것⁶⁹⁾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8월 9일(정미)에는 왕이 釋奠을 親行하고 太學의 掌議들에게 “내가 君師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제 2百年 동안의 성대한 典禮를 修擧한 것은 겉치레가 아니다. 士習이 경박한 것은 그대들도 이미 말한 바 있으나, 그것은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행하기 어려운 것일 뿐이다. 그대들이 경박한 습성을 제거한다면 儒生들도 본받을 것이다. … 聖廟를 지키는 것은 선비로서 당연한 도리이며, 先師가 여기에 계시니 그대들도 힘쓰도록 하라!”⁷⁰⁾고 下諭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出御下輦臺 上曰 文·武一體 不可偏廢 其竝試武士 乃命李克增等爲試官 取內禁衛吉邵等三人 昌孫等取文科崔涓等三人以啓 …

6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顯宗大王行狀. ‘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行狀’條. … 辛丑二年 … 九月庚午[子]幸太學 釋奠先聖 因取士 左議政沈之源以爲 御供既減 則百官祿俸 亦不當如前 王曰 朝土之所賴者 祿奉 漸至殘薄 何以責其廉隅乎 …

6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顯宗 2年 9月 24(庚子)日條. 上幸成均館 行酌獻禮 祀畢 出御明倫堂 使命官李景奭 出題試士 留承旨一人監製 …

6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16年 8月 8(丙午)日條. 上詣太學 行釋奠禮也 既詣太學 親製七言絶句及小識文 付之享官廳壁上 蓋追述舊典 勉勵士習之意也.

7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16年 8月 9(丁未)日條. 上行釋奠禮 召諭太學掌議曰 予在君師之位 今修二百年曠典 此非文具也 士習渝薄 爾等亦言之 而非知之艱 惟行之艱 爾等能祛渝薄之習 則他儒亦當效之矣 圓點雖爲赴擧而設 予之必使圓點 非以功利導之 守聖廟 乃士子當然之道 先師在是 爾等其勉之 既試士 取李

그러나 영조대왕이 釋奠을 親行한 깊은 뜻은 『國朝寶鑑』에 더욱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國朝寶鑑』의 영조 16년(1740) 8월조에는 “비로소 釋菜를 親行하였다. 이전에 列朝에서 謁聖·酌獻·視學의 禮는 親行하였으나, 釋菜를 친행한 것은 성종 6년(1475)과 현종 2년(1661) 때의 釋菜 뿐이었다. 이때 이르러 상이 釋菜를 親行하면서 직접 小識를 짓고 ‘圓滿하여 偏僻되지 않다는 말이 書籍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가(周而不比 豈不載書)’의 8字를 친히 써서 享官廳의 壁에 걸도록 하였다. 또 御製詩 1首를 諸生에게 내보였다. 釋菜禮가 끝나자 明倫堂에 나아가 科擧를 設行하여 선비를 試取하였다. 大司成에게 명하여 한 달에 3번씩 太學에 와서 諸生들에게 勸課하도록 하였다. 또 『周禮』의 州에서 太學으로 올라오도록 하는 法을 본떠 式年마다 各道로 하여금 각각 五經에 능통한 한 사람을 추천하여 太學에 들어오게 하도록 하였다.”⁷¹⁾고 기록되어 있다.

『英祖實錄』과 『國朝寶鑑』의 서술을 통해서 볼 때, 英祖大王이 釋菜禮를 친행한 것은 결국 성종 11년(1480, 경자) 2월 7일(정사)에 거행되었던 常典(舊典)을 추모하여 서술하고 士習을 면려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英祖大王의 繼事述志에 바탕을 둔 學問的·思想的·政治的 경향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3.2 英祖大王 親行釋奠의 參與人士

영조 16년(1740, 경신) 8월 9일(정미)의 英祖大王 親行釋奠에 참여하였던 인물은 다양하다.

『承政院日記』의 기록에 의하면 영조 16년(1740, 경신) 8월 8일(병오) 當日의

昌壽等四人 上初命取三人 纔拆名 上取預差中一試券覽曰 予意在惜才也 遂命書等而拆其名 乃仁平君李普赫子重祚也 上喜曰 功臣之題 勳臣之子入格 可奇也.

71) 國朝寶鑑廳 編, 『國朝寶鑑』. 英祖 16年 8月條.

八月 始親行釋菜 先是 列朝雖親行謁聖·酌獻·視學之禮 而至於親行釋菜 惟成宗六年 顯宗二年而已 及是 上親行釋菜 御製小識 御書周而不比豈不載書八字 并令揭享官廳壁 又御製詩一首 宣示諸生 釋菜禮畢 御明倫堂 設科取士 命大司成 月三至大學 勸課諸生 做周禮州陸學之法 每式年 令諸道 各薦能通五經者一人 使入大學.

날씨는 맑았으며, 午時에 國王이 文廟釋菜의 親祭를 위하여 動駕할 때 行都承旨 尹容을 비롯한 行左承旨 朴弼均, 右承旨 韓師得, 左副承旨 李世璉, 右副承旨 趙明履, 同副承旨 宋教明, 假注書 南泰會·李聖運, 記事官 李壽德, 別兼春秋 金漢喆 등이 隨駕하였던 것⁷²⁾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8월 9일(정미) 당일의 날씨도 맑았으며, 四更 一點에 國王이 文廟釋菜의 親祭를 거행하는 동안에는 行都承旨 尹容을 비롯한 10인이 御駕를 隨行·陪從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寅時에 國王이 明倫堂에 나아가 人材를 試取할 때에는 行都承旨 尹容, 行左承旨 朴弼均, 右承旨 韓師得, 左副承旨 李世璉, 右副承旨 趙明履, 同副承旨 宋教明, 假注書 南泰會·李聖運, 記事官 李壽德, 別兼春秋 金漢喆, 讀券官 金在魯·李秉常·尹陽來·閔應洙·吳瑗·申晚·金始燦·趙錫命·柳緹·洪好人, 對讀官 曹命教·沈星鎮·沈聖希·金尙魯·李錫杓·李德重·兪叡基·尹敬龍·李匡輔·任珽·南泰齊·鄭翬良·韓翼馨·金尙迪·李成中·申思建·朴弼載·尹光毅·尹尙任·曹允濟 등이 試官으로써 함께 入侍하였으며, 辰時에 國王이 放榜을 設場할 때에는 行都承旨 尹容, 行左承旨 朴弼均, 右承旨 韓師得, 同副承旨 宋教明, 假注書 南泰會·李聖運, 記事官 李壽德, 別兼春秋 金漢喆 등이 入侍하였던 것⁷³⁾으로 기록하고 있다.

72)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寫本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61. 英祖 16年 8月 8(丙午)日條.

行都承旨尹容(隨駕齋宿) 行左承旨朴弼均(隨駕齋宿) 右承旨韓師得(隨駕齋宿) 左副承旨李世璉(隨駕齋宿) 右副承旨趙明履(隨駕齋宿) 同副承旨宋教明(隨駕齋宿) 注書李會元(受由在外) 一員未差 假注書南泰會(隨駕齋宿) 李聖運(隨駕齋宿) 事變假注書閔師弘(守官) 晴 … 八月初八日午時 上行文廟釋菜親祭 動駕時 行都承旨尹容 行左承旨朴弼均 右承旨韓師得 左副承旨李世璉 右副承旨趙明履 同副承旨宋教明 假注書南泰會 假注書李聖運 記事官李壽德 別兼春秋金漢喆 隨駕 …

73)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英祖 16年 8月 9(丁未)日條.

行都承旨尹容(坐) 行左承旨朴弼均(坐) 右承旨韓師得(坐) 左副承旨李世璉(坐直) 右副承旨趙明履(坐直) 同副承旨宋教明(坐) 注書李會元(受由在外) 一員未差 假注書南泰會(仕) 李聖運(仕直) 事變假注書閔師弘(仕) 晴 … 初九日四更一點 上行文廟釋菜親祭陪從時 行都承旨尹容 行左承旨朴弼均 右承旨韓師得 左副承旨李世璉 右副承旨趙明履 同副承旨宋教明 假注書南泰會 假注書李聖運 記事官李壽德 別兼春秋金漢喆陪從 … 初九日寅時 上御明倫堂 諸試官 同爲入侍時 行都承旨尹容 行左承旨朴弼均 右承旨韓師得 左副承旨李世璉 右副承旨趙明履 同副承旨宋教明 假注書南泰會 假注書李聖運 記事官李壽

이상의 영조 16년(1740, 경신) 8월 9일(정미)에 英祖大王 親行的 釋奠에 참여한 인물들의 人的事項을 <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1> 英祖 16年(1740, 庚申) 英祖大王 親行的 釋奠 參與者의 人的事項

號	職任	姓名	生沒年	本貫	號	諡號	詩	9日	8日	備考
01	國王	英 祖	1694-1776	全州	養性	英宗	○	在昌	在成	
02	大提學	吳 瑗	1700-1740	海州	月谷	文穆	○	讀券	-	
03	行都承旨	尹 容	1684-1746	坡平	-	-	○	坐	駕宿	
04	行左承旨	朴弼均	1685-1760	潘南	-	章簡	○	坐	駕宿	
05	右承旨	韓師得	1689-1766	淸州	-	-	○	坐	駕宿	
06	左副承旨	李世璣	1669-1749	碧珍	-	-	○	坐直	駕宿	
07	右副承旨	趙明履	1697-1756	林川	蘆江	文憲	○	坐直	駕宿	
08	同副承旨	宋教明	1691-1742	礪山	-	-	○	坐	駕宿	
09	成均館大司成	沈聖希	1684-1747	青松	-	-	○	對讀	-	
10	弘文館副校理	南泰齊	1699-1776	宜寧	澹亭	清獻	○	對讀	-	
11	弘文館修撰	金尙迪	1708-1750	江陵	-	-	○	對讀	-	
12	弘文館修撰	鄭羣良	1706-1762	延日	南崖	文憲	○	對讀	-	
13	弘文館修撰	李成中	1706-1760	全州	質庵	貞敏	○	對讀	-	
14	別兼春秋	金漢喆	1701-1759	慶州	-	孝簡	○	陪從	隨駕	
15	假注書	李聖運	1695- ?	陽城	井觀	-	○	仕直	駕宿	
16	假注書	南泰會	1706-1770	宜寧	紫巖	獻敏	○	仕直	駕宿	
17	兼春秋	李壽德	1696-1764	咸平	-	-	○	陪從	隨駕	
18	注書	李會元	? - ?	慶州	-	-	-	在外	在外	
19	事變假注書	閔師弘	? - ?	驪興	-	-	-	仕	守宮	
20	左議政	金在魯	1682-1759	淸風	淸沙	忠靖	-	讀券	-	
21	戶曹判書	李秉常	1676-1748	韓山	三山	文靖	-	讀券	-	
22	左參贊	尹陽來	1673-1751	坡平	晦窩	翼獻	-	讀券	-	
23	吏曹判書	閔應洙	1684-1750	驪興	梧軒	文憲	-	讀券	-	
24	吏曹參判	申 晚	1703-1765	平山	-	孝正	-	讀券	-	

德 別兼春秋金漢喆 讀券官金在魯·李秉常·尹陽來·閔應洙·吳瑗·申晚·金始煥·趙錫命·柳緝·洪好人 對讀官曹命教·沈星鎮·沈聖希·金尙魯·李錫杓·李德重·俞取基·尹敬龍·李匡輔·任珽·南泰齊·鄭羣良·韓翼馨·金尙迪·李成中·申思建·朴弼載·尹光毅·尹尙任·曹允濟入侍 … 初九日辰時 上御下輦臺 設場放榜 入侍時 行都承旨尹容 行左承旨朴弼均 右承旨韓師得 同副承旨宋教明 假注書南泰會 假注書李聖運 記事官李壽德 別兼春秋金漢喆入侍 …

25	戶曹參判	金始燦	1676-1750	江陵	梅谷	-	-	讀券	-
26	漢城府左尹	趙錫命	1674-1753	豐壤	墨沼	-	-	讀券	-
27	副總管	柳 綈	1684-1752	晋州	-	-	-	讀券	-
28	副司直	洪好人	1674- ?	南陽	老圃	-	-	讀券	-
29	吏曹參議	曹命教	1687-1753	昌寧	澹雲	-	-	對讀	-
30	知製教	沈星鎮	1695- ?	青松	澹窩	-	-	對讀	-
31	副護軍	金尙魯	1702- ?	淸風	霞溪	翼獻	-	對讀	-
32	副護軍	李錫杓	1704-1751	慶州	南麓	-	-	對讀	-
33	副護軍	李德重	1702- ?	韓山	潔齋	-	-	對讀	-
34	同副承旨	俞取基	1689-1768	杞溪	自樂軒	貞簡	-	對讀	-
35	副護軍	尹敬龍	1686-1743	漆原	-	-	-	對讀	-
36	副司直	李匡輔	1687- ?	全州	-	-	-	對讀	-
37	副司直	任 珽	1694-1750	豐川	扈齋	-	-	對讀	-
38	副司果	韓翼晉	1703-1781	淸州	靜見	文肅	-	對讀	-
39	副司直	申思建	? - ?	平山	守齋	-	-	對讀	-
40	獻納	朴弼載	1688- ?	潘南	-	-	-	對讀	-
41	龍岡縣令	尹光毅	1695-1753	坡平	迂軒	-	-	對讀	-
42	副司果	尹尙任	1711- ?	坡平	-	-	-	對讀	-
43	副司果	曹允濟	? - ?	昌寧	-	-	-	對讀	-

이상을 통하여 보면, 영조 16년(1740, 경신) 8월 9일(정미)에 國王親行의 釋奠에 참여하였던 人士는 英祖大王을 비롯한 43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4.1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의 書誌와 形態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은 영조대왕이 그의 16년(1740) 8월에 태학에 나아가 釋奠을 親行하고 직접 七言絶句와 小識를 製述하여 享官廳의 벽에 붙이고 참여한 신하들에게 應製하여 賡進하도록 한 뒤에 書寫하여 分賜한 詩帖이다.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의 書誌와 形態事項을 摘錄하면 다음과 같다.⁷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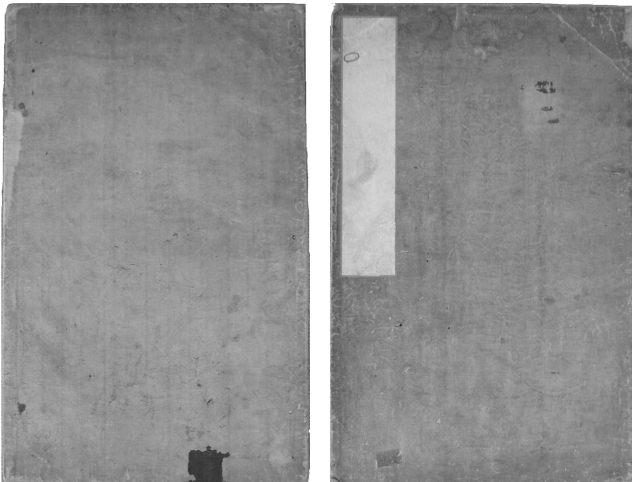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 英祖 等作. -- 筆寫本. -- [漢城]: [筆寫處不明], [英祖 16(1740)].

1帖(8折 32枚): 33.8 × 20.0cm 內外; 42.0 × 25.5cm. 白色壯紙墨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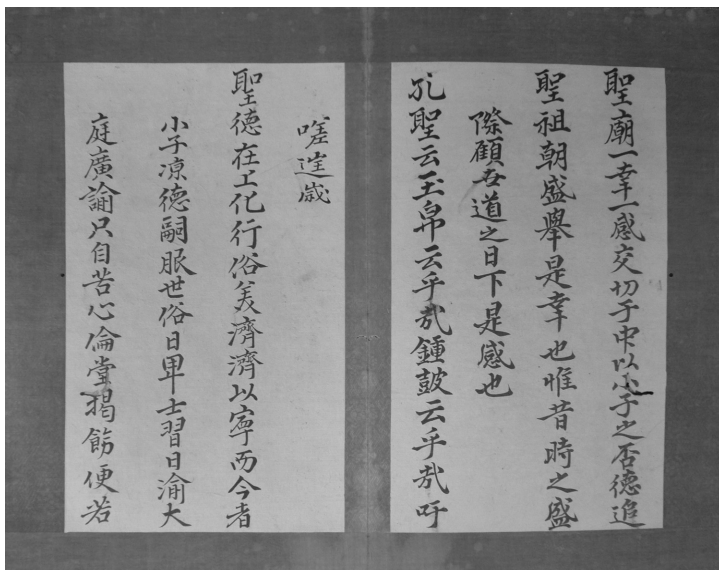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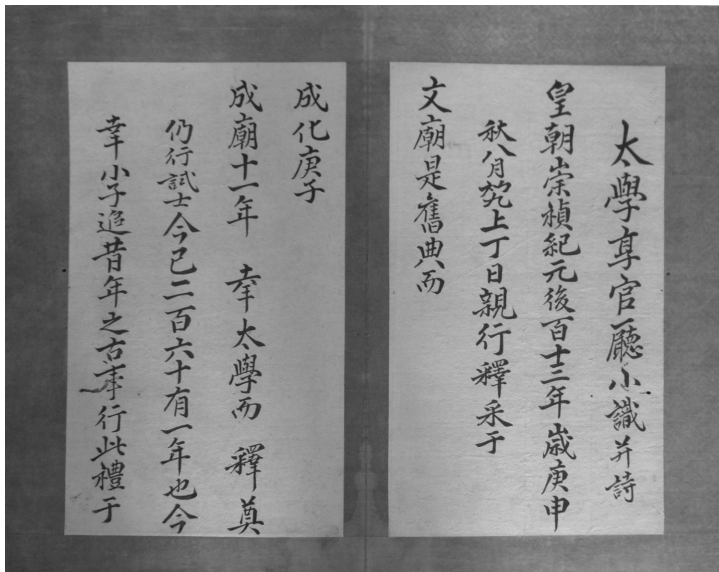
作者: 國王 英祖, 大提學 吳瑗, 行承政院都承旨 尹容, 行承政院左承旨 朴弼均, 承政院右承旨 韓師得, 承政院左副承旨 李世璣, 承政院右副承旨 趙明履, 承政院同副承旨 宋教明, 成均館大司成 沈聖希, 弘文館副校理 南泰齊, 弘文館修撰 金尙迪, 弘文館修撰 鄭翬良, 弘文館修撰 李成中, 別兼春秋 金漢喆, 承政院假注書 李聖運, 承政院假注書 南泰會, 兼春秋 李壽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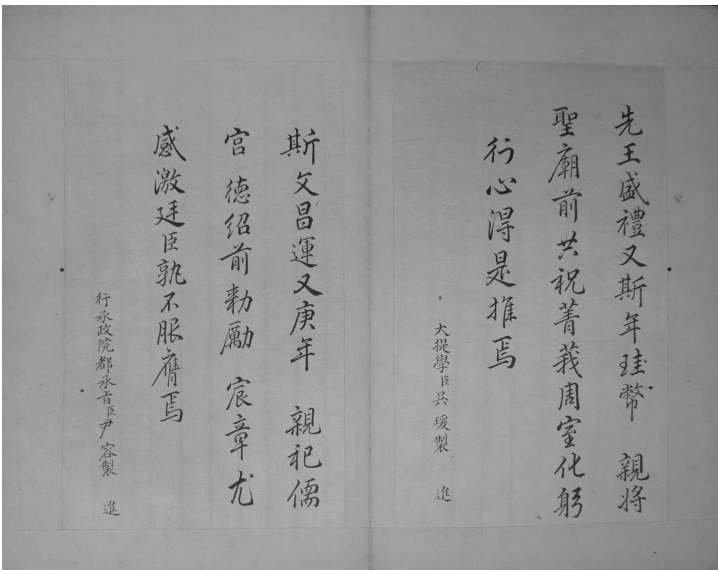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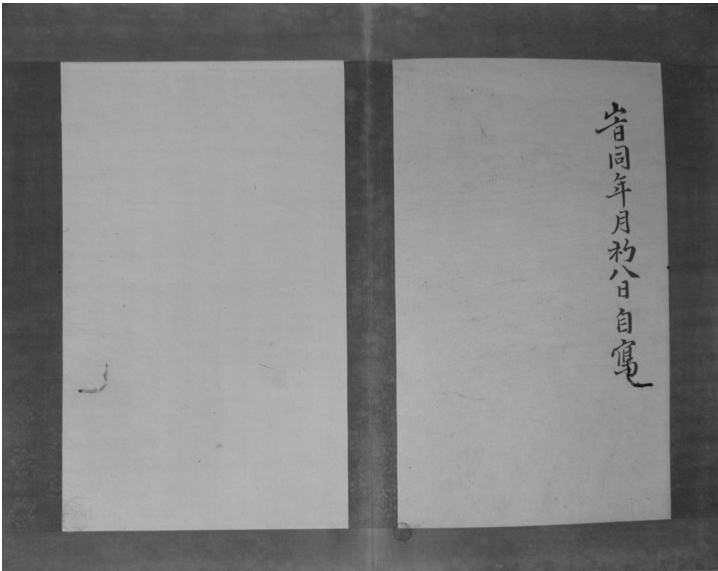
筆體: 作家 個人別 楷書體

<寫眞 1>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의 形態



74)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筆寫本. [漢城]: [筆寫處不明], [英祖 16(1740)].





4.2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에 收錄된 小識의 內容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의 <小識>는 「承政院日記」의 英祖 16년(1740) 8월 9일(정미)조에 <御製太學享官廳小識竝詩>⁷⁵⁾로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太學享官廳의 小識와 詩>

明朝 崇禎紀元 後 113년(1740, 영조 16, 경신) 가을 8월 9일(上丁)에 文廟에서 釋采禮를 親行하니 이는 예전의 常典일 뿐이며, 成化 庚子년(1480, 성종 11)에 成廟께서 太學에서 釋奠을 親行하고 試士를 거행하신지 이미 261년이 지난 일이다. 지금 다행히도 내가 그 昔年の 古事를 추고하여 聖廟에서 이 禮를 거행하노니 한편으로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興感이 심중에 간절히 교차되나, 내가 不德하나마 聖祖朝를 추모하여 盛大한 舉事를 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울 뿐이다. 예전의 盛大한 時代를 돌이켜보건대 당시의 世상은 道義의 天下였던듯 하도다. 孔聖께서 “玉帛을 云謂할 것이겠는가! 鐘鼓를 云謂할 것이겠는가!”고 하셨듯이, 아! 이미 잊은 듯이 지나간 세상살이로다. 聖德이 위에서 베풀어져 教化가 행하여지고 아름다운 풍속이 번성하여 安寧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와 내가 얇은 德으로 國位를 이어 받아서 世俗은 나날이 저속해지고 士習도 나날이 달라졌으나 조정에서는 廣喻할 때마다 스스로 苦心하면서 明倫堂에 申飭만 제시하여 그저 法文만 갖추었을 뿐이었다. 이제 이를 거행함에 있어 어찌 소홀히 할 것이런가! 沐浴齋戒하고서 興感을 이기지 못하여 詩 한 수를 지어 房壁에 내걸면서 序頭에 그 感慨를 기록하는 것을 뿐이다. 詩는 다음과 같도다.

成化年間 庚年은 지금부터 몇 백년 前이려던가
成廟朝의 舊禮 다시 회복되니 실로 다행이다
書籍에 수록된 孔聖의 밝디 밝은 가르침들이라
몸에 익히고 마음에 새겨 서로들 勸勉하리도다!
‘圓滿하여 偏僻되지 않다는 말이 書籍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가!(周而不比 豈不載書)’

때는 동년(1740, 영조 16, 경신) 8월 초8일에 自寫하다.⁷⁶⁾

75)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英祖 16年 8月 9(丁未)日條.

御製太學享官廳小識竝詩 … 周而弗比 豈不載書 時同年月初八日自寫.

76)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小識并詩’條.

皇明崇禎紀元後百十三年歲庚申秋八月初九上丁日 親行釋采[采]于文廟 是舊典 而成化庚子 成廟十一年 幸太學而釋奠 仍行試士 今已二百六十有一年也 今幸小子 追昔年之古事 行此禮于聖廟 一幸一感 交切于中 以小子之否德 追聖祖朝盛舉 是幸也 惟昔時之盛際

<小識>의 마지막 구절인 ‘원만하여 편벽되지 않음(周而弗比)’은 영조대왕이 後日에 蕩平策을 마련하는 데에 핵심적인 要語로 작용한 듯하다.

『英祖實錄』에 의하면 영조대왕은 그의 18년(1742) 3월 26일(을유)에 “映花堂에 나아가 王世子에게 儒服으로 進見하라고 명하였다. 또 將命 이하 諸 執事에게 入侍를 명하고 黨習을 일삼지 말라는 뜻을 諄諄히 面飭하고 御筆로 쓴 한 장의 종이를 儒生에게 주어 大司成에게 전하도록 하면서 ‘後世로 하여금 마땅히 나의 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 글에는 ‘圓滿하여 偏僻되지 않음은 곧 군자의 公心이요, 偏僻되고 圓滿하지 않음은 바로 小人의 私心이다!(周而不比乃君子之公心 比而不周 寔小人之私意)’⁷⁷⁾고 하고 그 아래에 年月을 썼는데, 碑에 새겨 泮水橋 위에 세우라 하명하였다.”⁷⁸⁾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서 영조대왕은 그의 16년(1740, 경신) 8월 9일(정미)에 釋奠을 親行하면서 이미 後日의 蕩平策을 계획하였으며, 그 결과 그의 18년(1742) 3월 26일(을유)에 마침내 泮水橋 위에 蕩平碑⁷⁹⁾를 세우도록 下命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顧世道之日下 是感也 孔聖云 玉帛云乎哉 鍾鼓云乎哉 吁嗟 迺[往]世 聖德在上 化行俗美 濟濟以寧 而今者小子 涼[涼]德 嗣服 世俗日卑 士習日渝 大庭廣諭[諭] 只自苦心 倫堂揭 飭 便若文具 今者此舉 亦奚間乎 齋居興感 以一小詩 書于房壁 記其概於首云爾 詩曰 成化于今幾百年 此辰何幸禮成前 載書孔聖昭昭訓 佩服銘心相勉焉 周而弗比 豈不載書 崑[時]同年月初八日自寫. <[]는 『承政院日記』의 기록임.>

77) 이는 『論語』 <爲政>의 “君子는 사람을 公平하게 대하고 偏黨을 짓지 않는데 반해 小人은 偏黨을 지으며 公平하게 대하지 않는다(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라는 구절과 <子路>의 “君子는 남과 화합하되 附和雷同하지 않고 소인은 附和雷同하되 남과 化合하지 않는다(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는 구절과 相通하는 것이다.

7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18年 3月 26(乙酉)日條.
上御映花堂 命王世子以儒服進見 又命將命以下諸執事入侍 以勿事黨習之意 諄諄面飭 以御筆書一紙授儒生 使歸傳大司成曰 使後世 當知予心也 其文曰 周而不比 乃君子之公心 比而不周 寔小人之私意 其下書年月 仍命刻碑 立之泮水橋上.

79) 蕩平碑: 周而弗比 乃君子之公心/ 比而弗周 寔小人之私意. 영조 18년(1742)에 영조가 자신의 蕩平策을 中外에 표방하여 警戒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운 비로 영조 자신이 親書하여 이를 비에 새겨 成均館의 泮水橋 위에 세운 것이다. 영조는 王世弟時節에 이미 黨爭의 弊害를 직접 경험하여 卽位하자마자 黨爭의 조정에 힘을 기울였다. 영조 원년(1725) 1월에 당쟁의 폐해를 痛言하면서 朋黨을 조성하는 자는 宗신토록 禁錮하여 國政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영조 3년(1727)에는 老論의 長期執權에서 오는 폐단을 제거하고자 老論의 강경과를 黜斥하고 少論을 등용하였으며, 또 兩派의 조정에 유의하여

4.3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에 收錄된 詩篇의 內容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에 수록된 詩篇은 英祖大王的 御製詩 1首와 大提學 吳瑗을 비롯한 行承政院都承旨 尹容, 行承政院左承旨 朴弼均, 承政院右承旨 韓師得, 承政院左副承旨 李世龜, 承政院右副承旨 趙明履, 承政院同副承旨 宋教明, 成均館大司成 沈聖希, 弘文館副校理 南泰齊, 弘文館修撰 金尙迪, 弘文館修撰 鄭翬良, 弘文館修撰 李成中, 別兼春秋 金漢喆, 承政院假注書 李聖運, 承政院假注書 南泰會, 兼春秋 李壽德 등의 16인이 御製詩에 應製賡進한 16首 등 도합 17首의 詩篇이 수록되어 있다.

4.3.1 英祖大王的 御製詩

영조 16년(1740) 8월 9일(정미)에 영조대왕이 釋菜禮를 親行하고 親製한 詩는 다음과 같다.

成化年間 庚年은 지금부터 몇 백년 前이려던가
成廟朝의 舊禮 다시 회복되니 실로 다행이도다
書籍에 수록된 孔聖의 밝디 밝은 가르침들이라
몸에 익히고 마음에 새겨 서로들 勸勉하리로다!⁸⁰⁾

老論의 領袖와 少論의 領袖를 친히 불러 응화를 주신하였다. 이어 영조는 各派의 穩健論者를 등용하여 蕩平策을 펼쳐나갔다. 蕩平策의 하나로 淸要職에 各派의 인물을 균형있게 登用하여 서로 견제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政策을 펼쳐 나가자 어느 정도 蕩平政局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이제는 政界에서 밀려난 南人·小北 등의 인물도 등용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어느 黨派에 대한 인물을 가리지 않고 能力에 따른 人材登用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영조 18년(1742)에는 자신의 蕩平政策을 알리고 열의를 과시하기 위하여 儒學의 本山이며 官學의 最高學部인 成均館儒生들에게 警戒文을 새긴 蕩平碑를 成均館 泮水橋 위에 세웠다. 영조는 「禮記」에 있는 “信義가 있고 아첨하지 않는 것은 君子의 마음이요, 아첨하고 신의가 없는 것은 小人의 사사로운 마음이다(周而弗比 乃君子之公心/ 比而弗周 寔小人之私意)”라는 文句를 親書하고 碑에 새겨 成均館에 세웠던 것이다. 현재 成均館 大學校內에 보관되어 있다.

80)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國王御製’條.
成化于今幾百年 此辰何幸禮成前 載書孔聖昭昭訓 佩服銘心相勉焉.

4.3.2 吳瑗의 製進詩

吳瑗(1700-1740)은 英祖朝의 文臣으로 本貫은 海州이고 字는 伯玉이며, 號는 月谷이고 諡號는 文穆이다. 父親은 海昌尉 文孝公 吳泰周(1668-1716)이다.

陶菴 李緯(1680-1746)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영조 4년(1728)에 庭試文科에 장원하여 文名이 높았다. 영조 5년(1729)에 正言으로 있으면서 蕩平策을 적극 반대하다가 한때 削職되었으나 영조 8년(1732)에 冬至使의 書狀官으로 清朝에 다녀온 뒤 校理·檢討官·吏曹佐郎·應教 등을 역임하였으며, 영조 12년(1736)에 參贊官으로 閔亨洙(1690-1741)를 伸救하려다가 또 파직되었으나 영조 15년(1739) 副提學으로 再起用된 뒤 承旨·工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일찍이 영조에게 唐朝의 陸贄(754-805)가 奏議한 兩稅法의 6가지 폐단을 進講하여 왕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으며, 또 聖學의 要務를 조목별로 밝히고 聖德의 문제와 時政의 臧否 등을 입론하였다. 성품은 直諫·溫厚하였으며 聰明絶人하고 文章 또한 淸絶하여 진정한 儒臣이라는 평을 받았다. 著書로는 「月谷集」이 있다.

당시 大提學의 職任이던 月谷이 製進한 詩는 다음과 같다.

先王朝의 盛禮있던 그 庚年을 다시금 맞아
珪幣로 聖廟에 친히 祭禮를 거행하시려네
人材 養成이 周王室처럼 되리라 기원하며
躬行과 心得으로 추진해 나갈 뿐이라시네!⁸¹⁾

4.3.3 尹容의 製進詩

尹容(1684-1746)은 英祖朝의 文臣으로 本貫은 坡平이고 字는 受甫이다.

경종 2년(1722)에 庭試文科에 급제하여 司憲府持平·弘文館副修撰 등을 거쳐 黃海道觀察使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으며, 그 뒤 司憲府持平·弘文館校

81)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大提學臣吳瑗製進’條.

先王盛禮又斯年 珪幣親將聖廟前 共祝菁莪周室化 躬行心得是推焉.

理·副修撰·司諫院獻納 등을 거쳐 영조 4년(1728)에 刑曹參議로 승진하였다. 영조 7년(1731) 成川府使로 임명된 뒤 黃海道觀察使·承旨·大司諫·經筵參贊官 등을 거쳐 영조 13년(1737)에 江華留守로 나갔다. 그 후 大司憲·大司諫·兵曹參判·戶曹參判·平安道觀察使를 거쳐 영조 16년(1740)에 都承旨·禮曹參判을 역임하고 京畿道觀察使·咸鏡道觀察使를 거쳐 영조 20년(1744)에 大司憲이 되고 이듬해(1745)에 咸鏡道審理使가 되어 三水·甲山·西水羅 및 白頭山 등지를 순찰하고 돌아와 咸鏡道의 人物을 발탁해 수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영조 21년(1745)에 特命으로 工曹判書에 승진하였으며 이듬해(1746)에는 大司憲에 제수되었다. 父親 楊江 尹趾仁(1656-1718)과 함께 清白吏로 名聲이 높았다.

당시 行承政院都承旨의 직임이던 尹容이 製進한 詩는 다음과 같다.

斯文의 昌盛한 運勢 그 庚年을 다시 맞으니
親祀하는 儒宮에는 前朝의 德이 이어지려네
詩文으로 勅勵함이 더욱 감격스러울 뿐인데
朝廷의 臣下로서 그 누가 服膺하지 아니리오!⁸²⁾

4.3.4 朴弼均의 製進詩

朴弼均(1685-1760)은 英祖朝의 文臣으로 本貫은 潘南이고 初名은 弼賢이며, 字는 正甫이고 諡號는 章簡이다. 燕巖 朴趾源(1737-1805)의 祖父이다.

玄石 朴世采(1631-1695)의 門下에서 修學하고 영조 원년(1725)에 庭試文科에 급제하여 藝文館奉教를 거쳐 영조 6년(1730)에 正言으로서 兩朝의 辨誣와 夢窩 金昌集(1648-1722)·疎齋 李頤命(1658-1722)의 伸冤을 촉구하는 疏를 올려 과직을 당하였으나 영조 7년(1731)에 다시 正言에 復官되었다. 그 뒤 副修撰·校理·持平·持平·修撰·正言 등을 역임하고 영조 16년(1740)에 禮房承旨를 거쳐 이듬해(1741) 同知義禁府事·京畿監司 등을 거쳐 大司諫이 되었다.

82)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行承政院都承旨臣尹容製進’條.
斯文昌運又庚年 親祀儒宮德紹前 勅勵宸章尤感激 廷臣孰不服膺焉.

그 뒤 戶曹參判·兵曹參判을 역임하고 영조 30년(1754)에 大司諫으로서 言路閉鎖와 科擧制度의 문란 및 百官들의 紀綱의 해이함을 陳戒하는 疏를 올려 인정을 받았다. 영조 34년(1758)에 同知敦寧府事와 同知中樞府事가 되었으나 영조 36년(1760)에 卒去하였다. 老論의 맹장이었으나 死後에 葬禮이 어려울 만큼 清白吏로 호평을 받았다.

당시 行承政院左承旨의 직임이던 朴弼均이 製進한 詩는 다음과 같다.

옛 庚年의 盛擧를 이 庚年에 또 거행하시니
우리러 感揆하는 聖禮의 前後가 되려하시네
네 글자로 申飭하여 勸勉하려고자 하시나니
小臣은 절하고 稽古하며 이어갈 뿐이옵나네!⁸³⁾

4.3.5 韓師得의 製進詩

韓師得(1689-1766)은 英祖朝의 文臣으로 本貫은 淸州이고 字는 季能이다.

경종 2년(1722)에 謁聖文科에 급제하여 說書를 거쳐 영조 2년(1726)에 正言으로서 朋黨弊端의 論疏를 올려 蕩平策의 의도를 가지고 있던 영조로부터 신임을 얻었으나, 영조 5년(1729)에 言路의 보장을 요구하는 과격한 疏를 올려 削職되었다. 그 뒤 正言·執義·司諫 등의 言官職을 역임하고 영조 10년(1734)에 承旨로 轉任되었으나, 영조 12년(1736)에 兵房承旨로서 御命을 잘못 전달하여 罷職을 당하였다. 뒤에 再起用되어 大司諫·承旨 등을 역임하다 靈巖郡守·寧海府使로 外補되었으나, 영조 19년(1743)에 京職으로 복귀하여 承旨·大司諫·兵曹參判·戶曹參判을 역임하였다. 영조 29년(1753)에 進賀兼謝恩副使로 燕京을 다녀와 刑曹參判·都承旨 등을 역임하고 영조 36년(1760)에 漢城府判尹으로 轉任되었다가 영조 40년(1764)에 判敦寧府事로 致仕하였다. 70세에 耆老所에 入社하였는데 후일에 아들인 參判 韓光肇(1715-1768)도 耆老所에 입사하자 父子

83)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行承政院左承旨臣朴弼均製進’條.
庚年盛擧庚年 仰感揆同聖後前 四字丁寧兼飭勵 小臣拜稽乃賡焉.

耆社로 世人들의 부러움을 샀다.

당시 承政院右承旨의 직임이던 韓師得이 製進한 詩는 다음과 같다.

옛 庚年에 행하던 遺儀 금년에 다시 행하시니
大牢로서 두 기둥 앞에 친히 奉行을 하시도다
道義를 드높이는 것이란 제사만 아닐 뿐이려니
장차 傳하고자는 것은 오로지 正心뿐이라시네!⁸⁴⁾

4.3.6 李世璣의 製進詩

李世璣(1669-1749)은 英祖朝의 文臣으로 本貫은 碧珍이고 字는 明瑞이다.

영조 원년(1725)에 군수로 庭試文科에 급제하여 이듬해(1726) 持平이 되어 三司의 원활한 운영과 朋黨의 弊害를 논하다가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三水府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1727)에 석방되어 弼善·掌令·獻納·司諫 등을 역임하였으나, 영조 5년(1729)에 山林出身의 朴弼周(1665-1748)·梁得中(1665-1742)의 非禮를 논하다가 罷職되어 城門 밖으로 쫓겨났다. 그 뒤 다시 司諫을 거쳐 參議에 올랐으나 職事를 잘못 처리하여 파면되었다. 영조 18년(1742)에 다시 承旨에 발탁되어 同知中樞府事·刑曹參判·漢城府左尹 등을 거쳐 영조 24년(1748)에 知中樞府事로 耆老所에 入社하였으며 그 뒤로도 同知義禁府事·漢城府判尹 등을 역임하였다.

당시 承政院左副承旨의 직임이던 李世璣이 製進한 詩는 다음과 같다.

聖廟에 祭禮를 밝히신지 몇 백년이 흐른 것이런가
우리 堦上 道義도 공경하사 舊典을 다시 밝히시네
온 나라 백성과 선비 서로 기뻐하며 나누는 말들이
이제부터 文物과 教化가 더욱 闡明되리이라 하시네!⁸⁵⁾

84)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承政院右承旨臣韓師得製進’條.

庚歲遺儀又是年 大牢躬奉兩楹前 尊道非尊籩頭耳 進傳不外正心焉.

85)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承政院左副承旨臣李世璣製進’條.

聖廟明禋幾百年 吾王敬道更光前 環東民主相歡語 文化自今大闡焉.

4.3.7 趙明履의 製進詩

趙明履(1697-1756)는 英祖朝의 文臣으로 本貫은 林川이고 字는 仲禮이며, 號는 蘆江·道川 등이고 諡號는 文憲이다.

영조 7년(1730)에 庭試文科에 급제하여 奉教·正言 등을 거쳐 영조 10년(1734)에 持平이 되었다. 正言으로 있을 때 영조에게 治民策을 올려 嘉納되었으나 영조 11년(1735)에 持平 李台重(1694-1756)을 翰林職에 추천한 사실로 삭직되었다. 그 뒤 校理로 復職되었으나, 少論 李光佐(1674-1740)의 黨으로 지목되어 다시 2년간 유배되었다. 영조 16년(1740)에 再起用되어 同副承旨·義州府尹·大司成 등을 거쳐 영조 24년(1746)에 副提學으로서 「光廟御製訓辭」를 纂輯하여 嘉善大夫에 加資되고 이어서 同義禁府事·都承旨·吏曹參判·江原道觀察使·大司憲 등을 역임한 뒤 영조 31년(1755)에 判尹으로서 「闡義昭鑑」의 편찬에 纂輯堂上으로 참여하였다. 文章과 글씨에 뛰어났으며 文集으로 「道川集」이 있다.

당시 承政院右副承旨의 직임이던 蘆江이 製進한 詩는 다음과 같다.

옛 庚年 이어받아 泮祀를 親行하러시니
宋儒의 徽範이 전날의 漢唐朝 그대르네
밝고 빛난 문장으로 깊은 警戒 내리시사
예전 들던 至道를 다시 執行하러시련다!⁸⁶⁾

4.3.8 宋教明의 製進詩

宋教明(1691-1742)은 英祖朝의 文臣으로 本貫은 礪山이고 字는 治叔이다. 영조 6년(1730)에 庭試文科에 급제하여 檢閱·司憲府持平 등을 거쳐 영조 11년(1735)에 問禮官에 올랐으나 3품 譯官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파면을 당하였다. 이듬해(1736) 正言에 제수된 뒤 副修撰·修撰·司諫·執義 등을 역임하고 영조 16년(1740)에 承旨가 되었다. 그의 저서인 「諫議公遺稿」는 일선의 首領으

86)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承政院右副承旨臣趙明履製進'條.
泮祀親將繼昔年 崇儒徽範漢唐前 雲章煥爛垂深戒 至道曾聞復執焉.

로 근무하면서 보고 느낀 점들을 정리·분석하여 對策을 제시한 疏와 辭職疏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시 承政院同副承旨의 직임이던 宋教明이 製進한 詩는 다음과 같다.

芹宮에 親祀하신 그 庚年 다시금 돌아오니
盛際와 鴻休가 앞뒤로 함께 어우러지려시네
네 글자로 夫子의 가르침 親히 書寫하시니
聖謨를 그 누가 불복하며 繼承아니하려신가!⁸⁷⁾

4.3.9 沈聖希의 製進詩

沈聖希(1684-1747)는 英祖朝의 文臣으로 本貫은 靑松이고 字는 而天이다. 弱冠에 진사가 되어 成均館에 들어가 掌議가 되었다. 숙종 41년(1715)에 兪蔭(1607-1664)가 『家禮源流』를 간행할 때 스승인 兪蔭를 배반한 尹拯(1629-1714)을 배척하였으며, 이어서 李眞儒(1669-1730)가 尹拯을 비난한 鄭澐(1648-1736)의 跋文을 불사르게 하자 成均館 儒生들과 함께 항소하고 捲堂까지 하였으나 少論의 득세로 축출되었다. 얼마 뒤 老論의 복귀로 翼陵參奉에 등용되었고, 영조 원년(1725)에 增廣文科에 급제하여 注書·說書·副修撰 등의 三司의 요직을 역임하고 大司諫·忠淸道觀察使·慶尙道觀察使·吏曹判書·大司憲 등을 역임하였다. 성품이 단아하고 재식이 뛰어났으며, 三司에 재직할 때는 直言을 잘 하고 外職에 나가서는 化民正俗에 힘써 많은 名賢과 孝子·烈女를 旌表하였다.

당시 成均館大司成의 직임이던 沈聖希가 製進한 詩는 다음과 같다.

높으신 임금으로서 말 타던 일 말하지 않으시며
隆師의 盛德으로 앞일을 추고하여 의지하려시네
대길 뜻 내걸어 奎藻를 베풀어 感應하는 것이라
우두커니 바라보니 많은 벼슬아치 勉勵함ishi네!⁸⁸⁾

87)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承政院同副承旨[臣]宋教明製進’條.

芹宮親祀復庚年 盛際鴻休併後前 四字特書夫子訓 聖謨誰不服賡焉.

88)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成均館大司成臣沈聖希製進’條.

4.3.10 南泰齊의 製進詩

南泰齊(1699-1776)는 英祖朝의 文臣으로 本貫은 宜寧이고 字는 元鎮·觀甫
등이며, 號는 澹亭·鶴野 등이고 諡號는 淸獻이다.

영조 3년(1727)에 增廣文科에 급제하여 영조 4년(1728)에 『肅宗實錄』의 편찬
에 참여한 뒤 典籍·禮曹佐郎·持平·兵曹佐郎 등을 거쳐 영조 10년(1734)에
正言으로서 당시 領相인 沈壽賢(1663-1736)을 탄핵하다 珍島郡守로 좌천되었
다. 영조 11년(1735) 이래로 掌樂院僉正을 시작으로 弼善·掌令·正言·知製
教·獻納·執義·修撰·校理 등 臺閣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당시 紀綱·財
用·風俗 및 時·僻派의 논쟁 등에 대한 是正을 요구하는 上疏를 많이 올렸으나
제대로 嘉納되지 않고 오히려 유배당하는 일이 많았다. 영조 19년(1743) 이래로
兵曹參議·同副承旨·大司諫·吏曹參議·刑曹參議·江華留守·刑曹參
判·戶曹參判·漢城府尹·大司憲·大司成·開城留守 등을 역임하였다. 영조
36년(1760) 이래로 知敦寧府事·漢城府判尹·內醫院提調·刑曹判書·禮曹
判書·世子右賓客·都摠管·京畿道觀察使·弘文館提學 등을 거쳐 영조 43년
(1767)에 吏曹判書에 이르러 致仕하고 耆老所에 入社하였다. 성품이 단정하였
으며, 文章이 우아하여 詩文에 華實이 구비되었으며, 諸子百家에도 통달하였다.
저서로는 『澹亭遺稿』가 있다.

당시 弘文館副校理의 직임이던 澹亭이 製進한 詩는 다음과 같다.

泮宮에 御駕가 親臨하던 그 庚年을 또 맞으사
우리나라에서 盛事가 進후로 이어지려 하도다
금일에 成均儒生에게 다시금 勸勉하는 뜻이사
게시한 임금님 文章 공손히 바라 볼 뿐이오다.⁸⁹⁾

休說高皇馬上年 隆師盛德遙追前 宸情寓感垂奎藻 佇見羣工勉勵焉。
89)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弘文館副校理臣南泰齊製進』條。
鸞旂在泮再庚年 盛事吾邦後繼前 今日衿紳更勉意 恭瞻宸藻揭於焉。

4.3.11 金尙迪의 製進詩

金尙迪(1708-1750)은 英祖朝의 文臣으로 本貫은 江陵이고 字는 士順이다. 영조 9년(1733)에 謁聖文科에 급제하여 承文院校理를 거쳐 영조 11년(1735)에 史官이 되어 史草의 작성에 종사하였으며, 영조 17년(1741)에 關東御使로 파견되었다가 持平·掌令 등을 거쳐 영조 19년(1743)에 書狀官으로 清朝를 다녀온 뒤 이듬해(1744) 應教로서 궁중에서 사용할 家人禮에 대해 진술하였다. 영조 22년(1746) 이래 慶尙道審理使·大司諫·刑曹參議·同知義禁府事·禮曹參判 등을 역임하였으며, 영조 26년(1750)에 刑曹參判으로서 魚鹽稅를 균등히 하기 위하여 6도에 三使를 파견할 때 京畿·黃海 兩道의 均稅使로 나가 민정을 살폈다. 풍모와 지기가 뛰어났고 直言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弘文館修撰의 직임이던 金尙迪이 製進한 詩는 다음과 같다.

文廟에 奉禮하던 그 庚年 다시금 맞으시사
 聖神들과 祖孫들을 앞뒤로 섬기려 하시오다
 初志一貫 教化하는 뜻조차 알기를 바라시사
 先祖 따라 太學에서 文章으로 表하신도이다⁹⁰⁾

4.3.12 鄭翬良의 製進詩

鄭翬良(1706-1762)은 英祖朝의 文臣으로 本貫은 延日이고 字는 子羽·士瑞 등이며, 號는 南崖이고 諡號는 文憲이다.

영조 13년(1737) 別試文科에 급제한 뒤 侍讀官·應教 등을 역임하고 영조 31년(1755)에 『闡義昭鑑』의 纂輯堂上이 되었으며, 이듬해(1756) 提學을 거쳐 大提學에 오른 뒤 戶曹判書·工曹判書·吏曹判書·兵曹判書·平安道觀察使 등을 역임하고 영조 37년(1761)에 右議政이 되었다가 곧 左議政에 올랐다. 당시 영조의 蕩平策을 반대하고 少論을 탄핵하고 제거한 뒤 사직하여 領中樞府事의 間職

90)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弘文館修撰臣金尙迪製進’條.
 禮行文廟又庚年 聖祖神孫事後前 要識一初敷教意 先從太學表章焉.

에 轉職하였다. 歸鹿 趙顯命(1690-1752)의 배경으로 大臣의 지위에 올랐으며, 大提學을 역임하여 文名이 높았다. 저서로는 「南崖集」과 「見思錄」 등이 있다.

당시 弘文館修撰의 직임이던 南崖가 製進한 詩는 다음과 같다.

멀리의 盛事로 教化가 갖춘 해가 되려나니
임금님은 聖師 앞에서 享祀를 奉行하시다
아! 임금님 큰 덕이 具顯되지 않으시오사
儀文을 제술하는 뜻조차 외롭지 않으시라!⁹¹⁾

4.3.13 李成中の 製進詩

李成中(1706-1760)은 英祖朝의 文臣으로 本貫은 全州이고 字는 士得이며, 號는 質庵이고 諡號는 貞敏이다.

世宗의 5子인 廣平大君 李璵(1425-1444)의 후손으로 洪鳳漢(1713-1778)과 親交가 있었으며, 영조 17년(1741)에 吏曹佐郎이 된 뒤 副修撰·刑曹參判 등을 거쳐 영조 30년(1754)에 湖南地方에 釐正使로 파견되어 각종 民瘼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영조 32년(1756)에 慶尙道觀察使를 역임한 뒤 吏曹判書에 이르렀으며, 한때 暗行御史로 전국 각지를 순행하며 각 지방의 民弊를 척결하는데 힘썼다. 저서로는 「質庵集」이 있다.

당시 弘文館修撰의 직임이던 質庵이 製進한 詩는 다음과 같다.

芹宮에서 享祀하던 庚年을 또 다시금 맞으시니
막중한 道義와 큰 規範이 앞뒤로 한결 같으시라
聖人께 절하며 先師들의 聖訓으로 教化하러시사
아! 그 聖訓 어찌 감히 업신여길 수 있사오리까!⁹²⁾

91)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弘文館修撰臣鄭翬良製進」條. 盛事遙追成年 玉簇玄袞聖師前 於乎不顯宣陵德 不獨儀文可述焉.

92)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弘文館修撰臣李成中製進」條. 芹宮奠壁又庚年 重道宏規一後前 拜聖仍教師聖訓 於乎聖訓豈欺焉.

4.3.14 金漢喆의 製進詩

金漢喆(1701-1759)은 英祖朝의 文臣으로 本貫은 慶州이고 字는 士迪이며 諡號는 孝簡이다.

영조 7년(1731)에 庭試文科에 급제하여 檢閱을 거쳐 司諫院과 弘文館의 清要職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영조 10년(1734)에 司諫院 正言으로서 朋黨打破와 保民의 요체를 상소한 뒤 兼春秋로 있으면서 翰林薦擧로 물의를 일으켰다가 다시 弘文館으로 들어갔다. 영조 17년(1741)에 書院毀撤의 금지를 주장하였으며, 元景夏(1698-1761)가 朝廷에 新黨을 만든다고 탄핵하다가 오히려 削職을 당하였다. 그 뒤에 再起用되어 東萊府使를 거쳐 영조 23년(1747)에 大司諫에 발탁되었다. 文臣들을 대상으로 하는 庭試에 급제하여 영조의 신임을 받았으며, 都承旨· 吏曹參判· 京畿道觀察使· 咸鏡道觀察使 등 內外的 要職을 두루 역임하였다. 영조 33년(1757)에 大司憲으로 재임할 때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量田의 실시를 주장하였으며, 그 뒤에 右參贊에 이르렀다.

당시 別兼春秋의 직임이던 金漢喆이 製進한 詩는 다음과 같다.

庚年 맞아 昌盛한 시기 거듭 이어지려나니
나라 法이 전후로 聖賢께 전해지려오이다
先師께 親祀하며 그 教訓에 感興하심이라
詩 한 수 없다면 정녕 無心이 아니오리까!⁹³⁾

4.3.15 李聖運의 製進詩

李聖運(1695-?)은 英祖朝의 文臣으로 本貫은 陽城이고 字는 士休이며 號는 井觀이다.

경종 원년(1721)에 增廣試로 生員이 되고 영조 14년(1738)에 式年文科에 급제

93)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別兼春秋臣金漢喆製進’條.

昌期重屬涓灘年 家法相傳聖後前 親祀先師感師訓 有詩不是無心焉.

하여 縣監을 거쳐 兵曹正郎에 이르렀다. 저서로는 文集이 있었다고 하나 전하지 않는다.

당시 假注書의 직임이던 井觀이 製進한 詩는 다음과 같다.

聖祖께서 太學에 臨御한지 어언 二百年이라
아! 아름다운 盛事가 다시 前途를 밝히시네
밝고 밝은 經訓의 옥 같은 글월을 바라보사
크도다! 君心으로 더욱 勸勉하러 하심이여!⁹⁴⁾

4.3.16 南泰會의 製進詩

南泰會(1706-1770)는 英祖朝의 文臣으로 本貫은 宜寧이고 字는 聖際이며, 號는 紫巖이고 諡號는 獻敏이다.

영조 12년(1736)에 庭試文科에 급제하여 文學·正言·持平·修撰·獻納·校理·兼文學·承旨 등을 역임한 뒤 영조 33년(1757)에 大司諫을 거쳐 이듬해(1758) 都承旨가 되었다. 영조 38년(1762)에 大司憲이 되고 영조 43년(1767) 이래로 刑曹判書·京畿道觀察使·兵曹判書·知中樞府事·刑曹判書 등을 역임하였으며, 영조 45(1769년)에 同知義禁府事를 역임하였다.

당시 承政院假注書의 직임이었던 紫巖이 製進한 詩는 다음과 같다.

覺堂에 친히 享祀하신 庚年이 다시금 돌아오니
막중한 道義의 君心은 능히 전과도 같으시오다
儒化는 항상 成化年間 庚年이라 칭송되리오나
우리 임금님 바라는 날은 정녕 오늘뿐이시오라!⁹⁵⁾

94)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假注書臣李聖運製進’條.

聖祖臨雍二百年 於休盛事復光前 昭昭經訓瞻奎藻 更願君心益勉焉.

95)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承政院假注書臣南泰會製進’條.

覺堂親祀復庚年 重道宸心克配前 儒化每稱成化際 吾王今日庶幾焉.

4.3.17 李壽德의 製進詩

李壽德(1696-1764)은 英祖朝의 文臣으로 本貫은 咸平이고 字는 得甫이다. 영조 9년(1733)에 式年文科에 급제한 뒤 持平·正言 등을 역임하였으나, 영조 28년(1752)에 왕의 부름을 어긴 것으로 慶尙道에 流配되었다가 放免되어 獻納·掌令 등을 역임하고 旌義縣監·順天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영조 34년(1758)에 司諫으로서 居廬廳의 官銀問題에 의견을 제시하다가 영조의 노여움을 사기도 하였으며, 영조 38년(1762)에 承旨로 있을 당시 兵曹郎官 南龍見(1696-1764)과 勅使隨行의 問題으로 서로 다투다가 官職을 박탈당하였다.

당시 兼春秋의 직임이던 李壽德이 製進한 詩는 다음과 같다.

盛禮가 다시 奉行되니 어언 二百年만이려나
우리 國王 儒化가 그 예전보다 더 빛나시네
한결같은 申飭으로 여러 儒生을 勸勉하시니
모두 欽仰하여 奎章도 휘황히 燦爛하시오다!⁹⁶⁾

이상의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에 수록된 英祖大왕의 御製詩 1首와 吳瑗·尹容·朴弼均·韓師得·李世璣·趙明履·宋教明·沈聖希·南泰齊·金尙迪·鄭翬良·李成中·金漢喆·李聖運·南泰會·李壽德 등의 16인이 御製詩에 應製廣進한 16首 등 포함 17首의 詩篇은 그 중 英祖大왕의 御製詩만 『英祖實錄』에 수록되어 있을 뿐, 應製廣進詩는 여타 어떤 文獻에도 수록된 바 없는 듯하다.

따라서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은 현재로서는 唯一本에 해당하는 貴重한 資料이므로 地方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96)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兼春秋臣李壽德製進’條.

盛禮重修二百年 吾王儒化實光前 一初飭勉羣工意 咸仰奎章又燦焉.

5. 結 論

이상에서 英祖大王 親行의 釋奠祭와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에 수록된 詩篇들에 관하여 고찰한 바, 이를 요약하여 結論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釋奠은 文廟에서 孔子를 비롯한 先聖과 先師를 享祀하는 의식으로 ‘釋奠祭’·‘釋菜’·‘釋菜禮’·‘上丁祭’·‘丁祭’라고도 하며, 처음에는 푸성귀만을 놓고 享祀하였으나 後世에는 고기와 과일 등의 풍성한 祭物을 마련하여 享祀하였다.

(2) 우리나라의 釋奠은 시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의 경우 英祖大王 이전에 국왕이 謁聖·酌獻·視學 등의 禮를 親行한 사례는 적지 않았으나, 釋奠을 친행한 것은 성종 6년(1475)과 현종 2년(1661) 때의 釋奠뿐이다.

(3) 영조 16년(1740) 8월에 王이 太學에 나아가 釋奠을 親行한 것은 성종 11년(1480) 2월에 거행되었던 常典을 추모하여 서술하고 士習을 勉勵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英祖大王의 繼事述志에 바탕을 둔 學問的·思想的·政治的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4)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에는 영조 16년(1740) 8월에 王이 釋奠을 親行할 때의 御製詩 1首와 大提學 吳瑗을 비롯한 尹容·朴弼均·韓師得·李世璣·趙明履·宋教明·沈聖希·南泰齊·金尙迪·鄭羣良·李成中·金漢喆·李聖運·南泰會·李壽德 등의 16인이 御製詩에 應製賡進한 16수 등 도합 17首의 詩篇이 수록되어 있다.

(5)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에 수록된 英祖大王의 御製詩를 비롯한 도합 17首의 詩篇은 國王親行의 釋奠을 慶賀함은 물론 이를 통한 風俗의 教化를 비롯하여 人材의 養成과 試取 및 儒風振作 등의 成就를 칭송하고 있다.

(6)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에 수록된 英祖大王의 御製詩를 비롯한 도합 17首의 詩篇은 英祖大王의 御製詩만 「英祖實錄」에 수록되어 있을 뿐, 應製賡進된 16首의 詩는 다른 어떤 文獻에도 수록된 바 없는 듯하다. 따라서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은 현재로서는 唯一本에 해당하는 貴重한 資料이므로 地方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참고문헌>

國朝寶鑑廳 編. 『國朝寶鑑』. 木版本. [發行地不明] : [發行者不明], 憲宗14[1848].
金富軾 奉宣撰, 民族文化推進會 編. 『三國史記』. 影印本.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73.

金榮振 著. 『忠北의 鄉校와 文廟』. 清州: 清州大學校博物館, 2005.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寫本影印本. [서울] : 國史編纂委員會, 1961.

英祖 等著. 『太學享官廳小識并詩帖』. 筆寫本. [漢城] : [筆寫處不明], [英祖
16(1740)]. 個人所藏.

鄭麟趾 等奉命撰. 『高麗史』.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8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太祖實錄·定宗實
錄·太宗實錄·世宗實錄·端宗實錄·成宗實錄·燕山君日記·中宗
實錄·宣祖實錄·顯宗實錄·肅宗實錄·英祖實錄·正祖實錄·高宗
實錄>.